

주후 50년 경, 고대 그리스의 주요 도시이자  
 세상에서 가장 잘 알려진 문화의 중심지 중 하나였던 아테네.  
 그러나 학문과 철학으로 유명했던 이 곳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이 서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안에는 무엇인가를 경배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경배해야 할지 모른다면 우리는 잘못된 대상을 경배하거나, 스스로 경배할 대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혹은 아테네 사람들처럼 누구를 경배하는지도 모른 채 단순히 우리가 누군가를 경배한다고 단정지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바울은 아테네에 갔습니다. 그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알 수 있는 신(神)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천 년 전, 바울이 아테네에서 말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창조자로서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님, 곧 소유자이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전에 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사람의 생각이나 상상 따르 존재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민족들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은 모든 인류의 근원이십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지명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온 세상을 심판할 날을 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오신, 하나님 자신이시며, 곧 하나님-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죄들을 없애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음 가운데 남아 있지 않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으켜지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다면 발견할 수 있는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심지어 그분은 여러분이 이것을 읽고 있는 동안에도 여기에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찾는다면 그분을 발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그냥 지나쳐 가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할 것을 명령하신다고 말합니다. 회개하는 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반드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께로 돌이킬 때 우리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으켜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단순히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실 것이고 우리 안에 들어와 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참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알지 못하는 신(神)'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당신은 그분께로 돌이켜 단순히 이렇게 기도 함으로 지금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 당신은 참된 하나님이시고 저의 창조자이시며 저의 구주 이십니다. 저에게 알려지기 위해 오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저의 죄들을 위해 죽으심에 감사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으켜지신 당신을 믿음으로, 당신 안으로 들어 갑니다. 지금 당신을 제 안으로 받아 들입니다."**

무료 신약성경 회복역과 신앙 도서를  
**WWW.BFA.ORG/KO**에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Living Stream Ministry에서 출판한 신약성경 회복역의 사도행전 17:16-31의 각주를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Bibles for America (BfA)는 미국 전역에 신약성경 회복역과 신앙 도서를 무료로 배포하는 사명을 가진 비영리 단체입니다. P.O. Box 17537, Irvine, CA 92623. 888.311.0571

© 2015 Bibles for America. 모든 내용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